

## Joy to the World: The Way of Love (Luke 1-2)

### 세상에 기쁨을: 사랑의 길 (눅 1-2장)

#### I. THE BIRTH OF JESUS—GABRIEL, MARY, JOSEPH, AND THE SHEPHERDS

예수님의 탄생 – 가브리엘, 마리아, 요셉, 그리고 목자들

##### A. Gabriel’s declarations of God’s favor on Mary (Lk. 1:26-30)

마리아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가브리엘 (눅 1:26-30)

<sup>26</sup>...the angel Gabriel was sent...to Nazareth...<sup>28</sup>[he] said to her, “Rejoice, highly favored one, the Lord is with you; blessed are you among women!”<sup>29</sup>But when she saw him, she was troubled...<sup>30</sup>[he] said to her, “Do not be afraid, Mary,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Lk. 1:26-30)

<sup>26</sup>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sup>28</sup>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한글KJV: 기뻐하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sup>29</sup>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한글KJV: 몹시 당황하여]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sup>30</sup>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눅 1:26-30)

##### B. Gabriel’s prophetic declarations about Jesus (Lk. 1:31-33)

예수님에 대한 가브리엘의 예언적 선포 (눅 1:31-33)

<sup>31</sup>“Behold, you will conceive in your womb and bring forth a Son, and shall call His name JESUS.<sup>32</sup>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Highest; and the Lord God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sup>33</sup> An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Lk. 1:31-33)

<sup>31</sup>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sup>32</sup>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sup>33</sup>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눅 1:31-33)

##### 1. About 700 years before Jesus was born, Isaiah saw the rule of Messiah (Isa. 4:2-6; 9:6-7).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 약 700년 전에 메시아의 통치를 목격했다 (사 4:2-6; 9:6-7)

<sup>2</sup>In that day the Branch of the LORD [Messiah] shall be beautiful and glorious... (Isa 4:2)

<sup>2</sup> 그 날에 여호와[메시아]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 (사 4:2)

<sup>6</sup>For unto us a Child is born...and the government will be upon His shoulder. And His nam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sup>7</sup>Of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and peace there will be no end. (Isa. 9:6-7)

<sup>6</sup>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sup>7</sup>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 (사 :6-7)

##### 2. About 500 years before Jesus was born, Ezekiel saw the Christ on a throne (Ezek. 1:22-28).

에스겔은 예수님의 탄생 약 500년 전에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목격했다 (겔 1:22-28)

<sup>26</sup>[I saw]...a throne...like a sapphire stone...with the appearance of a man high above it. <sup>27</sup>...I saw...the appearance of fire with brightness all around [Him]. <sup>28</sup>Like the appearance of a rainbow...was the appearance of the brightness all around it... (Ezek. 1:26-28)

<sup>26</sup>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sup>27</sup> ...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그의]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sup>28</sup>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 (겔 1:26-28)

3. About 500 years before Jesus was born, Daniel saw the Christ on a throne (Dan. 7:13-14).

다니엘은 예수님의 탄생 약 500년 전에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목격했다 (단 7:13-14)

<sup>13</sup>“I was watching in the night visions...One like the Son of Man, coming with the clouds of heaven...” <sup>14</sup>To Him was given dominion and glory and a kingdom, that all peoples, nations, and languages should serve Him. His dominion is everlasting...” (Dan. 7:13-14)

<sup>13</sup>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sup>14</sup>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 (단 7:13-14)

- C. Mary’s question, Gabriel’s answer, and Mary’s response to Gabriel (Lk. 1:34-37)

마리아의 질문, 가브리엘의 대답, 그리고 마리아의 가브리엘에 대한 반응 (눅 1:34-37)

<sup>34</sup>...“How can this be...?” <sup>35</sup>And the angel answered...,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the Highest will overshadow you; therefore, also, that Holy One who is to be born will be called the Son of God...” <sup>37</sup>For with God nothing will be impossible.” <sup>38</sup>Then Mary said, “Behold the maidservant of the Lord! Let it b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Lk. 1:34-38)

<sup>34</sup> ...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sup>35</sup>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 <sup>37</sup>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sup>38</sup>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눅 1:34-38)

- D. Matthew gave us an account of four dreams that gave Joseph supernatural direction. The first told him that Mary conceived a child by the Spirit (1:18-21), the next told him to flee to Egypt (2:13-14), another told him to return to Israel (2:19-21), and later a dream not to go to Judea (2:22-23).

마태는 요셉이 네 번의 꿈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기록했다. 첫째 꿈에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을 말했고 (1:18-21), 그 다음은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말했으며 (2:13-14), 그 다음 꿈에서는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2:19-21), 그 이후 꿈은 유대 땅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다 (2:22-23).

<sup>19</sup>Joseph...[planned] to put her away secretly. <sup>20</sup>But while he thought about these things, behold, an angel...appeared to him in a dream, saying, “Joseph...that which is conceived in her is of the Holy Spirit...” <sup>21</sup>call His name JESUS, for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Mt. 1:19-21)

<sup>19</sup> 그의 남편 요셉은 ...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계획하여] <sup>20</sup>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sup>21</sup>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 1:19-21)

- E. The angel of the Lord spoke to the shepherds about the birth of Jesus (Lk. 2:8-20).

주의 사자(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전했다 (눅 2:8-20).

<sup>8</sup>Now there were...shepherds living out in the fields,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 by night... <sup>9</sup>An angel of the Lord stood before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y were greatly afraid. <sup>10</sup>Then the angel said to them, "...I bring you good tidings of great joy which will be to all people. <sup>11</sup>For there is born to you this day...a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 <sup>13</sup>Suddenly there was with the angel a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 praising God and saying: <sup>14</sup>"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goodwill toward men!"... (Lk. 2:8-14)

<sup>8</sup>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sup>9</sup>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 하는지라 <sup>10</sup>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sup>11</sup>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 <sup>13</sup>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sup>14</sup>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눅 2:8-14)

## II. TRUSTING GOD'S LEADERSHIP: THE WAY OF LOVE

하나님의 리더십을 신뢰함: 사랑의 길

- A. God unfolds His purpose in a hostile world with a real enemy waging a real war against His people. This is the context in which He will bring forth His Bride in mature love, humility, and partnership.

하나님께서서는 실제적인 대적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싸우고 있는 적대적인 세계 가운데 자신의 목적을 펼쳐놓으신다. 그분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자신의 신부를 성숙하고, 겸손하며,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이들로 일으키실 것이다.

<sup>7</sup>Let us be glad...for the marriage of the Lamb has come, and His wife has made herself ready <sup>8</sup>...arrayed in fine linen...for the fine linen is the righteous acts of the saints. (Rev. 19:7-8)

<sup>7</sup>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sup>8</sup>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 19:7-8)

- B. The "what" of the story is that "God became a Man because of love" and the "how" of the story shows how He brings His people to mature in love. His leadership of Mary and Jesus gives insight into how He leads His people. He allowed them to face the difficulties that we face (Heb. 4:15; 5:8).

이 스토리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고, 이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신 "방법"은 그분이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성숙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분의 마리아와 예수님에 대한 리더십을 통해 우리는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볼 수 있다. 그분은 그들이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직면하도록 허락하셨다 (히 4:15; 5:8).

- C. **God's leadership:** We must trust God's leadership in **how** He releases His promises in our life. They are often fulfilled in a **way** and at at **time** that differs greatly from what we normally expect. Often delayed, they are progressively released in stages and in context to difficulties that cause us to cling to the Lord in a way that helps us to grow in love and humility.

**하나님의 리더십:**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시키되는 **방법**에 대해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이 약속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방법**과 **때**에 성취되기도 한다. 이는 종종 지연되기도 하며, 천천히 성취되기도 하며, 어려움 가운데에서 성취되기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의지함 가운데 사랑과 겸손함이 성장하도록 한다.

- D. Many of His promises are only released **partially** in this age and then in **fullness** in the age to come. This forces us to often realign our heart to agree with His leadership, causing love to mature in us.

그분의 약속들의 많은 부분들은 지금 시대 가운데 **부분적으로** 성취되며, 그 이후 다가올 시대에 **충만하게** 성취된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주 그분의 리더십에 대해 다시 동의하게 만들며, 우리의 사랑이 성숙해지게 한다.

- E. Mary knowing that God was using her to change history was not the same as her maturing in love and humility. She often had to choose faith and obedience that expressed her love and humility. What the Lord told Mary seemed too good to be true; thus many concluded that she was deluded or was lying. The Lord promised His people that they will reign as kings and priests as His Bride.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는 데에 자신을 사용하시는 것을 아는 것과, 그녀가 사랑과 겸손이 성숙해지는 것은 별개의 일이었다. 그녀는 자주 믿음과 순종을 선택해야 했으며, 이를 통해 그녀의 사랑과 겸손이 표현될 수 있었다. 주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으며, 많은 이들은 그녀가 속았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신부로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 F. Mary was able to understand some of what Jesus and others would endure during their lives. Jesus' brothers did not believe Him (Jn. 7:5), nor did the spiritual leaders in Nazareth—they wanted to throw Him off a cliff (Lk 4:29) and spread rumors 30 years later of Mary's fornication (Jn. 8:41).

마리아는 예수님과 다른 이들이 삶에서 견뎌내야 했던 일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으며 (요 7:5), 나사렛의 영적인 지도자들 또한 그분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을 절벽으로 밀어버리고자 했으며 (눅 4:29), 마리아의 수태 후 30년 후에는 마리아가 간음을 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요 8:41).

- G. Jesus endured accusations from others that His life and ministry was in vain, accomplishing nothing. Jesus acknowledged that He had spent His strength in vain in man's eyes because He did not achieve anything notable from their point of view (49:4). He declared that His choices to trust God's promises and to invest His life in obeying Him were glorious in God's eyes (49:5).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과 사역이 헛되었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고 다른 이들이 비난하는 것을 견디셔야 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인간의 관점으로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기에, 인간의 눈에는 힘을 헛되이 쓴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인정하셨다 (49:4).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며, 자신의 삶을 그분께 순종하는데 투자하기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음으로 선포하셨다 (49:5).

<sup>4</sup>“I [Jesus] said, ‘I have labored in vain, I have spent My strength for nothing...yet surely My just reward is with the Lord...<sup>5</sup>For I shall be glorious in the eyes of the Lord.’” (Isa. 49:4-5)

<sup>4</sup> 그러나 나[예수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sup>5</sup> ...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광롭게 되었으며 ... (사 49:4-5)